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영원한 학부형
년대기들마다 창조된 건설속도
금수강산
7
주체110(2021)
루계 제383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1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0(2021)년 7월호

이어지는 영웅의 넋

전쟁로병인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렬사의 위훈담을 들으며 어린 소녀는 영웅의 묘비앞에 꽃송이를 진정한다.

비록 영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조국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그의 삶은 후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있다.

본사기자

제383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편집: 최은혁, 변일진, 김유일

ㄱ-21801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

조국인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포치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 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립하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는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외에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전당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진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당과 국가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비등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올해에 들어와 혁명투쟁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상반년기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44%,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5%로 넘쳐 수행하고 현물량적으로도 많이 장성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정책적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기본취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의정들을 제의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주요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행정형총화와 대책에 관한 문제, 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방향에 관한 문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 조직문제가 주요의정으로 상정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상정된 의정들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상반년기간 주요정책적과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실태자료와 당적, 국가적으로 시급히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이 전원회의앞에 보고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첫째 의정토의에서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과 단위들의 상반년기간 사업정형을 상세하게 분석총화하시고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룩하며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부문별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재까지의 영농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농사를 잘 짓는것은 현시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지난해 농사교훈과 올해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것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를 셋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업의 현 실태를 분석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악성비루스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을 따라 계속 악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급선무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시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결론들에 지적된 상반년도사업총화분석에 립각하여 하반년도 투쟁과업들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토의를 위하여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하반년도에 수행하여야 할 실속있고 동원적인 과업들과 실천적방도들이 충분히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하고 올해 시달된 주요국가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적문제들을 반영한 결정서와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를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근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주되는 변화들과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평가를 내리시였다.

특히 새로 출범한 미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금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대응과 활동방향을 명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관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과 원칙들을 표명하시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능동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현 실정에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활동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직접 료해하신 인민생활실태자료들과 그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여주고 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언명하시면서 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여섯째 의정으로 토의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기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일곱째 의정으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하여 총화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혁명의 전투적참모부,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데서 앞장에 서야 할 사람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주요정책적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실행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칠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여덟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를 해임 및 임명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정열적인 참가와 무한한 책임성에 의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력사적인 중대한 임무를 다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도기관 성원들이 전원회의의 전기간 당과 국가전반사업토의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열중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견인불발의 투지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아나서도 추호의 변심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는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중대결정들을 내린 력사적인 회의로, 전진도상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 큰 분발력으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파감히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의의깊은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것이다.

* * *

직업동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10(2021)년 5월 25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온 나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가 열리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억척으로 뭉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단결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전체 직맹원들을 더욱 분발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가 사회주의의 위대한 새 승리, 새 생활을 향해 더 빨리 내달리려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한결같은 열망에 부응하여 동맹사업에서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전환적인 계기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당이 내세운 새 단계의 투쟁로선과 방침에 열렬히 호응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전국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시대는 변하고 세대도 계속 바뀌고있지만 우리 로동계급처럼 자기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과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로동계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5년간의 헐치 않았던 투쟁행정에서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고귀한 칭호를 안겨준 당중앙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비상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근년간 사상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혁명의 전진비약을 위한 주체적힘이 비상히 강화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구상과 결심을 절대지지하며 결사관철해온 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근로자들의 고결한 충성과 영웅적투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당중앙은 언제나 한마음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신뢰하고 충직하게 따르는 로동계급의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받아안으면서 국가방위를 위한 민족자존의 중대사도 주저없이 결단하였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숙원사업들도 통이 크게 펼칠수 있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곧 진리이고 과학이며 승리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병진의 화선길에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친 전투장들과 우리 경제의 자립화, 주체화를 위한 전초선들에서 간고한 노력끝에 이룩한 자랑찬 창조물들과 성과들은 오늘 우리가 더 큰 목표와 리상을 내세우고 나아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경제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정비보강하여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새 단계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5개년계획기간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뿐아니라 5년을 주기로 한번씩 크게 도약함으로써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 국가의 자존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들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자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국면, 비상한 장성속도를 요구하는 새시대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앞에 도래한 위대한 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고조시대는 창조와 건설의 주역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직맹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들고 일어나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처럼 생산과 건설현장에서, 과학과 문명창조의 초소들마다에서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내달리며 긴장하고 헌신적인 로력투쟁을 벌려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적인 혁신을 이룩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과 꿈을 당에서 정한 기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더 빨리 나아가려는 비상한 혁명적열정에 넘쳐 소극과 보수를 부시며 대중적영웅주의의 위력으로 우리의 경제건설력사에서 전설적인 기적을 창조한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과 기백을 오늘의 혁명적진군에서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과 혁명앞에 지닌 시대적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혁명화, 공산주의화된 근로자들로 준비시키는것입니다.

직업동맹은 우리 세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조직성과 전투력, 단결력을 지닌 전위투사로 키우는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고 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새시대의 혁명적진군에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싸워나가는 공산주의적신념의 소유자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는것입니다.

혁명에 바치는 비상한 열정과 투신력은 자기위업의 정당성과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옵니다. 사회주의의 승리와 미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야 어떤 곤난속에서도 두려움없이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내세우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어려운 투쟁을 하고있지만 누구나 부럼없이 잘사는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구상하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상하는 강국, 사회주의사회는 전체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며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발휘되는 인민의 사회이며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이런 행복한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데 지향복종

되고있습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우리 당의 진정과 뜻,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해설해주어 그들이 자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몸바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모든 직맹원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지침을 밝힌 당문헌들과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사상과 당정책의 진수를 정확히 침투시켜 당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있고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환히 알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교양사업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와 전변상을 통하여 설득력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우리가 더 강대해지고 더 부유해질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분발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투목표와 그 실현의 과학성,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복락을 안겨주기 위해 전개되는 거창한 사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어 누구나 몰라보게 변모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당대회결정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우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를 뼈속깊이 새겨안고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떠메고나가도록 하는것입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로동계급이 지녔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락관을 본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전세대들처럼 가렬한 전쟁도 겪어보지 못하였고 빈터에서 나라를 일떠세우는 간고한 투쟁도 체험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우리 로동계급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승리와 행복이 온다는 신념을 안고 빈터우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웠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선렬들이 피땀으로 개척해온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똑바로 새겨주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전세대들의 그 신념이 책갈피의 글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 로동계급의 사상적혈통으로 굳건히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천리마시대가 높이 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오늘의 진군길에서 더 높이 들고 누구나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공산주의적미풍과 미덕을 발휘하며 자신의 창조적로동으로 나라와 인민의 번영과 행복에 이바지하는데서 참된 삶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을 찾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이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라의 맏아들,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자력갱생의 선봉투사, 창조의 기수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입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은 우리 국가의 장래발전과 인민생활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매우 관건적이고도 책임적인 투쟁이며 위대한 대고조시대는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일떠선 수백만 근로자들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5개년계획수행과정이 사회주의자립경제건설에서의 일대 혁명이며 오직 우리 식, 우리 힘으로써만 주체공업발전의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주어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수입병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단호히 배격하고 철두철미 우리의 원료와 자재, 우리의 힘과 기술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급자족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쓸모있고 값진 우리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자력갱생의 창조물들로 5개년계획수행정형을 총화받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경제전선의 직맹조직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짧은 기간에 주요공업제품생산을 몇배씩 장성시키면서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단숨에 뛰여넘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정신이 오늘의 총진군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둥공업인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국가의 100년앞날을 걸머진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천리마운동의 기치를 든 전세대들처럼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과 석탄, 기계와 채취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당의 정비보강전략을 드팀없이 관철하여 생산정상화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면서 5개년계획의 목표들을 앞당겨 점령하도록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직맹조직들에서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 식의 설계와 우리의 건재로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인민의 리상거리, 리상마을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도록 떠밀어주며 혁명의 2대전선의 하나인 경공업부문의 직맹조직들에서는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핵으로 틀어쥐고 인민생활에 절실한 소비품들을 인민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게 만들어내도록 대중을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 식 첨단무기개발의 초행길을 헤치던 그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금 분발하여 우리 국방공업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의 직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선도자, 부강조국건설의 개척자라는 무거운 사명과 영예를 간직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대의 분발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분야에서의 진정한 혁신은 생산자대중이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직맹조직들에서는 직맹원들 누구나가 다 발명과 기술혁신, 창의고안사업에 뛰여들어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로동생산능률제고에 가치있는 기여를 하는 로동자발명가로, 공장의 보배로 떠받들리우게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을 일터의 교정으로 삼고 열심히 배워 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잘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식의 문명창조로 전체 인민의 애국열, 투쟁열을 고조시켜나가는데서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전선의 직맹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전선의 직맹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부문의 직맹원들이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과 보건사업발전에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노력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의 직맹원들이 당의 문예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창조하여 로동당시대의 문화적보물고를 풍부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주의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

야 합니다.

직업동맹에서는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부문과 단위들사이, 직장과 작업반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과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일터마다 새 기준, 새 기록창조로 들끓게 하며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을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쟁과정에 교대가 교대를 돕고 작업반이 작업반을 도우며 공장이 공장을 도와주면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어깨겯고 전진하는 기풍이 일상사로, 생활 그자체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대중운동의 목표와 단계를 옳게 설정해주고 그에 대한 장악지도와 총화를 공정하고 정확히 하며 평가도 잘해주어 대중운동의 전과정이 대중의 분발심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상동원과정, 사상발동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 로동을 사랑하고 자기 직업과 일터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로동에 대한 사랑이자 조국에 대한 사랑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칠 때 우리가 바라는 강국의 꿈을 실현할수 있고 보다 위대한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주인된 우리 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이란 있을수 없으며 하나하나의 직업이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혁명초소, 애국초소입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 공장애, 직업애를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 누구나 자기 공장과 자기 일터를 떨수 없는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맡은 일을 잘하여 자신과 후대들의 행복을 가꾸며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십년간 한 직종에서 량심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사업도 잘해주며 직맹원들속에서 직업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고상한 도덕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문명의 체현자들로 만드는것입니다.

직맹조직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도덕과 문화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로동계급이 혁명성과 전투적기질에서는 물론 도덕과 문화면에서도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투쟁하는 시대, 끊임없이 전진하고 비약하는 시대에 공산주의적도덕관을 체현하고 건전하며 혁명적인 도덕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동맹원들이 례의범절과 공중도덕,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옷차림과 몸단장을 비롯한 외모에서 로동계급의 풍격이 안겨오도록 늘 관심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면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고 참다운 동지적단결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누구나 《천리마시대와 나》라는 물음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동지들과 집단에 불편을 준 일은 없는가, 동지들을 위하고 집단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늘 돌이켜보면서 후회없이 생활하고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직맹원들속에서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한 교양사업과 여러가지 정치문화활동도 활발히 조직하여 그들의 정치문화수준과 창조열의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직맹원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할뿐아니라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앞에서 로동계급의 기백이 넘치는 선동연설도 할줄 알며 예술과 체육활동에도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사회주의건설로 들끓는 대고조전역들마다 로동계급의 랑만과 정서, 전투적기상과 희열이 넘치고 온 사회에 언제나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설비애호관리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누구나 공장안팎을 제집처럼 꾸리고 일터를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거두며 자기의 기대를 살붙이처럼 아끼고 정히 다루어나가는것이 습벽으로 자리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도덕과 문화를 위협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원칙성이 강하고 불의를 증오하는 로동계급이 온갖 부정적현상과의 투쟁에 앞장설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가 굳건해지고 온 사회의 혁명화, 공산주의화가 더욱 다그쳐질수 있습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로동계급적순결성, 명줄을 지키기 위한 결사전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집중소탕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의 표현형태와 위험성, 해독적후과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그들의 머리속에 자그마한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도 발붙일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시키며 주위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에 대하여 묵과하지 말고 무자비한 투쟁을 벌려 철저히 제압분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사소한 이색적인 경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양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생활상곤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위와 집단의 리익을 좀먹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있을수 있는 일로 여길것이 아니라 강한 투쟁을 벌려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사업상특수성을 가지고있는 단위들일수록 사회주의원칙을 더 잘 지키도록 직맹조직들에서 교양과 통제를 보다 강화하여 동맹원들속에서 자그마한 불건전한 싹도 절대로 돋아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성과 조직성, 단결력과 전투력을 높여 그들이 새로운 혁명적대진군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자면 직업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직업동맹이 지난 시기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본태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활기가 없이 현상유지만 해온것은 동맹조직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옳바로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직업동맹은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전 동맹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에서는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교양체계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며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공세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전세대 로력혁신자들과의 상봉모임과 직맹이동해설강사들의 강의, 직맹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과 방송편집물, 다매체편집물을 리용한 교양사업 등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다양하게 적용하며 실효가 큰 교양형식과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여 교양사업에 적극 리용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에서 문화선전실을 사상교양의 거점답게 잘 꾸리고 교양사업에 필요한 비품들을 원만히 갖추며 그 운

영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에서는 지정된 교양장소나 고정된 격식과 틀이 따로 없습니다. 교양사업을 출퇴근길과 작업전에도 하고 작업휴식시간에도 하며 대중의 마음에 가닿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로동과 생활의 전과정이 그대로 당정책침투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상급동맹에서 내려보내는 교양자료들을 되받아넘기거나 교양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대치하는것과 같은 편향을 없애고 동맹원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현실과 결부하여 인식시키는데 힘을 넣어 모든 교양과정이 동맹원들의 마음과 심장을 움직이는 산 정치사업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이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엄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맹원들속에 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워주어 모든 동맹원들이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의무로만이 아니라 량심으로, 영예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의 싹을 찾아 키워주고 내세워주며 인생길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게 손잡아 이끌어주고 품어주어 그들이 조직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페부로 느끼게 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직맹조직들에서는 동맹생활총화와 정기총회, 분공조직과 총화를 제정된 날자에 어김없이 진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맹생활총화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고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을 강화하며 분공수행과정이 동맹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고 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한걸음의 양보나 융화가 동맹원들의 정치사상적변질의 시발점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조직생활을 통한 혁명적단련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상건설에 동원된 동맹원들과 분산되여 일하거나 류동이 많은 동맹원들과 같이 조직과 떨어져 일하고 생활하는 동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직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유리자, 조직미소속자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동맹조직생활체계밖에서 제멋대로 생활하는 직맹원이 단 한명도 없게 하여야 합니다.

직업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관건적고리는 직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가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것처럼 동맹의 뿌리와도 같은 초급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바로하여야 직업동맹사업이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초급조직을 강화하고 전 동맹을 강화하자면 모든 초급일군들이 하나같이 유능한 실력가, 동맹의 핵심으로 준비되여있어야 합니다.

직맹초급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의 진수를 동맹원들에게 능숙하게 해설해줄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자기 직종의 기술실무에 밝고 동맹사업의 실무적인 내용도 환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급일군들은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따라배우고 동맹원들에게 진심을 바침으로써 그들이 마음속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초급정치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직맹초급일군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과 경험발표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실속있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상급동맹일군들이 초급조직들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회의도 지도하고 초급단체위원장학습실운영도 직접 집행하며 회의보고서나 집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초급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직업동맹에서는 충성의 모범단체칭호쟁취를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충성의 모범초급직맹위원회, 충성의 모범직맹초급단체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합니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충성의 모범단체칭호쟁취를 위한 사업에서 본보기로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틀어쥐고 밀고나감으로써 충성의 모범단체칭호쟁취운동의 열의를 고조시켜나가야 합니다.

직업동맹에서 초급조직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직업동맹에서는 초급조직들의 조직구성실태를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서 동맹원들의 조직생활과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못된 문제들은 제때에 바로잡아나가야 합니다. 이중동맹생활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당의 방침전달침투사업이 지연되거나 상급동맹조직의 지시와 포치가 제때에 가닿지 못하는 동맹조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업동맹안에 로동계급의 기백이 차넘치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모든 직맹일군들은 언제나 로동계급적인 배짱과 투지, 결단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사업에 투신하여야 하며 패배주의와 보신주의를 불살라버리고 사업을 창발적으로,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직맹일군들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동맹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늘 고심하는 진지한 사업기풍, 무슨 일이든 일단 결심하면 결패있게 내밀어 끝장을 보고야마는 로동계급적기질과 본때를 사업에 구현하여 전 동맹이 당의 사상과 로선관철로 들끓고 혁신과 전진의 기상으로 높뛰게 하여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은 뜨거운 동지애, 인간애를 지니고 동맹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형, 친누이의 심정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은 생활상애로와 마음의 고충을 가슴속에 묻고 제집살림을 돌볼새 없이 늘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오래동안 나가 일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해 뼈심을 바치는 사람들을 진정을 다하여 보살펴주고 위해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생각과 행동을 집단, 동지들을 위함에 일치시키고 서로가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되도록 하여 집단의 위력으로 당정책관철에서 기적적위훈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직업동맹사업을 중시하고 적극 떠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이 직맹사업을 당적으로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직맹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다할수 있고 활기있게 전진할수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직맹사업에 대한 무관심은 직맹조직들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직맹사업을 정책적으로 옳게 지도하여야 합니다.

직맹일군대렬을 잘 꾸려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에 충실하고 혁명적 신념이 투철하며 로동현장에서 단련된 전개력이 있는 사람들,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되고 군중속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들로 직맹일군대렬을 잘 꾸려주어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이 직능대로 사업할수 있도록 조건보장을 잘해주며 그들이 영예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적극 내세워주고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을 다사업에 동원시키거나 직맹조직들에 사회적과제를 주어 동맹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을 제쳐놓고 그들이 할 사업까지 도맡아하는 편향을 없애고 직맹조직들과 직맹원들을 믿고 중요한 일감들도 맡겨주고 내세워주면서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기 위한 오늘의 진군에서 당의 령도에 충실하고 영웅적투쟁전통을 이어받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크게 믿고있습니다.

나는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창조와 건설의 힘찬 로력투쟁으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며 더욱 용감하게 나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 * *

수 기

영원한 학부형

개학날에 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1(1972)년 9월

제가 교장사업을 하는 김성주소학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린시절의 존함으로 불리우고 그이의 동상을 모신 뜻깊은 학교입니다.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 김성주소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는 남다른 긍지가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해인 주체34(1945)년에 창립된 우리 학교에는 70여년의 연혁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으며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전국에 알려져있습니다.

학교가 이런 영예를 지니게 된데는 위대한 수령님의 관심과 세심한 지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이께서 우리 학교(당시 평양제2인민학교)를 처음으로 찾아주신것은 해방후인 주체36(1947)년 7월 4일이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새 조국건설로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시였지만 우리 학교에 오시여 해방후 민주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졸업시험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 개학날인 주체61(1972)년 9월 1일 소학교입학생들을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학교(당시 대동문인민학교)에 찾아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신입생들이 메고있는 책가방도 손수 열어보시고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 등을 제대로 가지고왔는가도 알아보시면서 그들의 학습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습니다.

유치원을 거쳐 갓 들어온 6살 어린이들이 있는 1학년 교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키낮은 책상을 짚으시고 나어린 입학생들과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그때 그이께서 얼마나 허물없이 학생들을 대하시였는지 그들은 어려움도 잊고 자랑이나 하려는듯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집주소에 대하여 씩씩하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나어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이의 모습은 진정 친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였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담화를 마치신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입학하는 날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영광의 날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이어 그이께서는 3학년과 2학년 교실에로 발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이 학급들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1~2년전에 6살 어린이들을 받아서 시험적으로 공부시켜온 학급들이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공부를 몇시간씩 하는

國家試驗치르는兒童들찾어
金日成將軍 平壤第二人民學校視察
어린이들노래들으시고親切激勵

학교의 력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의 일부

가, 어느 과목이 힘든가, 올해에 견학은 어디에 갔다왔는가, 견학을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등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며 그들의 학습정형과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6살 어린이들도 능히 학교에 들어와 공부할수 있을뿐아니라 학교에서의 생활과 체육활동은 어린이들의 키도 빨리 크게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학생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그처럼 다정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며 철부지어린이들의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에서도 소중한것을 찾으시는 그이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와 전통 특히 항일무장투쟁력사와 전통을 가르쳐줄데 대한 문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높여주며 도덕교양과 체육교육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을 강조하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학교에 리발소와 목욕탕을 꾸려주어 학생들이 위생문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며 교복과 신발도 곱게 만들어 공급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의 그이의 가르치심은 정말 다심한 어버이의 심정이였습니다.

그날 신입생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교직원들과 학부형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학교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세심한 보살핌속에 뚜렷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나날 여러명의 교원들이 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를 받았으며 졸업생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 교수와 박사, 인민배우와 인민체육인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 예술인, 체육인들이 수많이 배출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연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있다.

오늘 학교의 교직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김성주소학교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전심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여러명의 교원들이 모범교수자로 되였으며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이 창안도입되였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체육시설을 갖추어놓은것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은 많이 개선되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한평생 후대교육사업에 마음을 많이 써오신 그이의 인자하신 영상이 더더욱 못 견디게 그리워지군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교원들과 학생들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학부형이십니다.

김성주소학교 교장 리영렬

주체108(2019)년 촬영

변모된 학교교사

20세기를 빛내여오신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세월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의 정계, 사회계와 해외동포들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는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유산-주체사상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다. 일찌기 조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탐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그 누구도 조선의 독립을 선사해줄수 없다는 자주적신념을 지니시고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로씨야인터네트신문 《브레먀 뻬레묜》)

《**김일성**각하께서는 인간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참으로 **김일성**각하는 사상과 리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전 마다가스까르 모니마사회주의조직(당) 총비서]

《주체사상의 창시는 지난날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속밑에 온갖 수난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피압박근로대중에게 운명개척의 길을 명시해준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는 자주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력사무대에는 세계자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펼쳐지게 되였다.》(에짚트신문 《알 나쉬르》)

《주체사상은 백과전서적인 사상으로서 그 어느 시대에도 다 적용되는 영원한 학설이라는것이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견해이다.

국제적판도에서 광범히 연구도입되고있는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가장 전파력이 강한 사상이다.

김일성주석의 유산인 주체사상은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캄보쟈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

민족의 어버이, 인민의 수령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짓밟힌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실 숭고한 사명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상상할수 없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력력히 어려있는 항일혈전의 자욱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민족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그이를 모시였기에 우리 겨레는 민족의 혈통과 언어, 력사와 문화를 빼앗긴 비참한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있었으며 망국노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평초처럼 떠돌던 해외동포들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한 성원으로 될수 있었다.》(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장 리병휘)

《**김일성**주석님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한평생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우리 민족은 재생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주체의 강국으로 온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시대와 력사,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그분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재중동포 최청산)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되 오늘과 같이 놀라운 현실을 국토우에 가꾸어놓게 된것은 **김일성**주석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하늘이 낸분이시다.》(재미동포 김성락)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 만민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강유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그분께서는 인민모두의 만복을 위해 나라의 새벽문도 제일먼저 여시고 저녁문도 제일 늦게 닫으시며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재로씨야동포 리동철)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바치신 한평생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족과 온 세계의 자주화실현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것으로 하여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세계적인 위인이시며 그이의 존함은 독립과 자유, 존엄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칭송되고있다.》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김일성**주석은 영광스러운 혁명활동과 생애로 20세기 년대기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대한 인간이시였다.》(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그이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새 생활창조를 위한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시였으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전 민주꽁고사회주의인민련합 총비서)

《**김일성**주석께서는 정규군의 지원이나 국가적인 후방도 없이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시고 중국혁명을 적극 성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반제자주에로 나아가는 나라와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였다.

그이의 영상은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귀감으로 만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자주로 빛나는 한생이였다. 그이께서는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고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워야 한다는 말이 대륙의 공용어로까지 되였다. …》(꽁고통신사 인터네트홈페지)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죠지 워싱톤과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대통령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다.》(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국가원수이시였다. 그분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오늘까지 활동한 위인들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인이시였다. 서방 7개국수뇌자들가운데 유일하게 나만이 그분을 만나본 행운을 가졌다. 나는 이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전 프랑스대통령 프랑쑤아 미떼랑)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정치사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고 미증유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투철한 자주신념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피압박근로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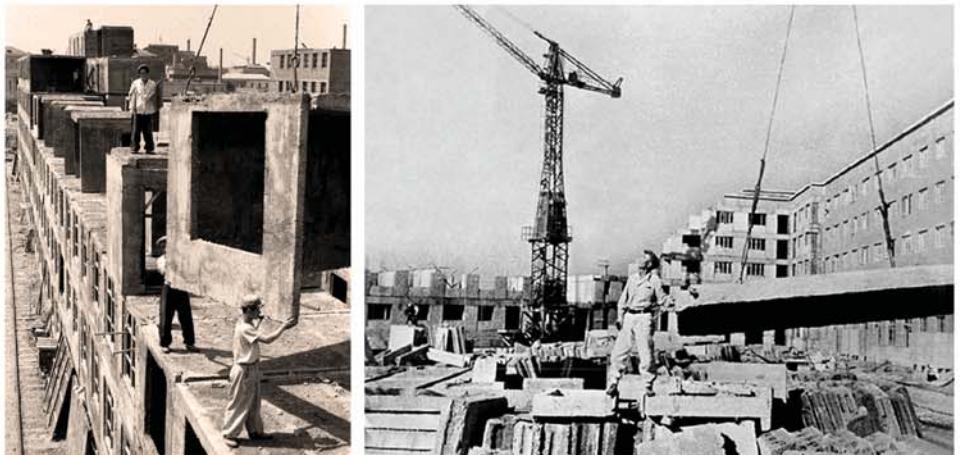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

본사기자

년대기들마다 창조된 건설속도

조국의 수도 평양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놀라운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건설이 시작되여 짧은 기간에 준비공사와 기초굴착공사를 끝낸데 이어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마감하고 골조공사에 들어갔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창조되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속도를 두고 조국인민은 새로운 평양속도라고 부르고있다.

돌이켜보면 평양시에 인민을 위한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의 후과로 평양시는 온전한 건물, 벽돌 한장 성한것 없이 모든것이 파괴되였다. 모든것이 페허로 되여버린 평양시를 두고 적대세력들은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도건설자들은 대담하게 창조하고 혁신하면서 평양시를 짧은 기간에 복구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조선인민의 기상을 세상에 떨치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창조된 평양속도는 천리마속도와 함께 1950년대 사회주의건설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되였다.

건설장마다에서 증산과 절약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면서 경이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이 과정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단 한해사이에 일떠세운 건설속도, 14분에 살림집을 한세대씩 조립하는 평양속도가 창조되였다. 그때 평양에 왔던 어느 한 외국인은 조선의 건설속도를 《인공위성의 속도》, 우리 인민을 《불사조》라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렇게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창조된

살림집건설에 떨쳐나선 1950년대의 수도건설자들

평양속도는 그후 년대기들마다에 이어져 새로운 건설속도를 낳게 한 바탕으로 되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큰물이 평양시를 휩쓴 1960년대에도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살림집을 건설하고 큰물피해를 완전히 가시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1970년대에는 천리마거리와 락원거리가 각각 반년사이에 일떠섰으며 첫 5년동안에만도 비파거리, 새살림거리 등이 완공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웅근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2만 5천여세대의 광복거리를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거리들이 일떠섰다.

1990년대에 들어와 수도의 살림집건설력사에서는 또다시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3년 남짓한 기간에 3만세대의 통일거리가 완공되였다. 통일거리건설과정에 건설자들은 살림집 한세대조립을 최고 4.9분에, 하루 보통 200세대이상의 살림집을 조립하였다. 이것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창조된 건설속도에 비하여 근 3배, 살림집세대당 면적으로 타산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건설속도였다.

1990년대초에 건설된 통일거리

2000년대에도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수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섰다.

지난 10년동안에 조국에서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거리들을 련이어 일떠세워 다시금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1980년대에 건설된 광복거리의 일부

창전거리의 어제와 오늘

주체104(2015)년에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

7개월동안에 은하과학자거리를, 1년동안에 미래과학자거리를 완공하는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두배이상에 달하는 려명거리도 빠른 속도로 건설되였다. 한개 층의 골조를 올리는 시간은 36시간으로부터 24시간으로, 그후에는 또다시 10여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70층살림집골조공사는 74일만에 완성되였다. 이와 같은 건설속도가 창조되는 속에 려명거리건설은 함북도북부피해복구로 3개월간 중지되였던 상태에서도 1년도 안되는 기간에 결속되였다.

조국에서 창조된 건설속도는 결코 평온한 날에 창조된것이 아니다.

전후복구건설시기는 물론 지금까지 조국은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고립압살책동과 군사적위협으로 인한 최악의 조건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해왔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은 주저하거나 물러섬이 없이 새로운 거리들과 살림집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웠다.

1만세대 살림집건설도 지속되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속에서 이런 대규모건설을 하는 것자체가 상상밖의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타산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호소를 받들고 수도건설자들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이 펼친 휘황한 진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수도건설자들은 전세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인민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일떠세우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변찬우, 김성진

주체106(2017)년에 완공된 려명거리

래일을 그려가는 사람들

39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은 조국의 유명한 건축창작연구집단이다.

이 연구원의 중앙홀에는 대형그림인 평양시조감도가 있다. 평양시에 새 건축물들이 세워질 때마다 연구원에서는 이 조감도를 수정하군 한다.

올해 말경에는 지금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와 보통강기슭에 일떠서고있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완공된 모습도 그려지게 될것이다.

평양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이 하나의 대형그림을 통하여서도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연혁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에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공공건물, 살림집건축, 설계력량과 함께 공기조화설비, 환경위생문제를 연구하는 과학연구력량이 꾸려져있다.

국가선물관, 창전거리, 인민극장,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릉라곱등어관, 마식령스키장, 평양국제비행장,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에는 이곳 설계집단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금 평양시 송신, 송화지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되고있는 1만세대 살림집거리형성안도 이곳 집단이 맡아 설계하였다.

건설 그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사업으로 되고있고 건축물들이 조형화, 예술화, 다기능화, 지능화되여있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있는 오늘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모든 건축물들을 민족적이며 현대미가 살아날뿐아니라 대상별특성과 용도, 수용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설계해나가고있다.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와 국내실정에 부합되는 록색건물의 평가기준, 록색건축과 지능건축설계기준, 건물의 에네르기절약설계기준을 확립한 그들은 새로운 평가체계들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고있다.

한편 연구원의 건재연구사들속에서는 국내에 흔한 원료로 철판지붕용소음막이칠감, 금속광택안료, 섬유질장식칠감, 먼적외선복사칠감, 색미장재료와 같은 친환경적이고 현대적미감이 살아나는 건재들을 개발도입하는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해가고있다. 국산화된 마감건재를 리용한 내부장식설계, 가구설계와 함께 원림록화설계를 발전시키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종합가스흡착제와 같은 국제발명을 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연구사들은 실내공기오염을 막기 위한 연구와 함께 공기조화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그 경험과 방법들을 일반화하고있다.

과학기술과 과장 전길만은 《우리는 설계도에 조국의 래일을 그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 도면에 찍는 점 하나, 긋는 선 하나에도 더욱 문명한 생활을 지향하는 인민의 리상과 꿈, 약동하는 기상을 그대로 담아야 하는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 지워져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건재의 국산화

지금 조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살림집건설과 산업건설, 지방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늘어나는 건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강하게 내밀고있다.

조국에는 건재를 국산화할수 있는 잠재력과 토대가 충분하다.

우선 건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여있다.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과 승호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하여 각 도에 꾸려진 세멘트생산기지들에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연료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세멘트소성로착화에 중유대신 조국에 흔한 무연탄을 도입하여 많은 중유를 절약하였으며 내화물소성공정에서 중유에 의한 소성방법대신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소성방법을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효률을 높이였고 잡은 먼지를 재자원화하여 세멘트생산에 리용하는 등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세멘트생산에서 기본은 기술개조를 앞세워 현존설비들을 보수하고 갱신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기간 전국의 세멘트공장들에서 생산능력을 배로 확장할것을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세멘트 못지 않게 마감건재 역시 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건축물의 질이 나라의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라면 마감건재의 질은 건축물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질좋은 마감건재를 국산화하여 그 보장을 따라세워야 어떤 대상건설도 계획대로 진척시킬수 있다.

조국에는 마감건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원료가 풍부하며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의 잠재력이 크다.

전국의 마감건재생산단위들에서는 이미 꾸려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며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여 국내의 원료로 건재품생산을 전문화, 전통화하는것과 함께 그 질을 높여 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천리마타일공장에서는 국내원료를 리용한 내동성외벽타일을 개발생산한것을 비롯하여 원료와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해나가며 해마다 많은 량의 타일을 생산하고있다.

청진스레트공장에서도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단위의 전통제품인 지붕재의 질과 가지수를 늘이고있다. 공장에서는 색철판지붕생산설비를 제작하고 지방원료에 의한 압착기와생산공정을 꾸려놓았으며 능률적인 스레트생산설비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 세멘트와 마감건재를 생산하는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를 꾸려놓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두해전 각 도건재전시회-2019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강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에 풍부한 천연석재와 목재를 리용한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지방건설에서 그 덕을 보고있다.

평안북도에서도 최근년간 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현대적인 건재종합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지방건설에 이바지하고있다. 세멘트색기와생산공정과 비소성세멘트, 수지관, 중공블로크생산공정 등 여러 공정들을 종합화한 기지에서는 수많은 각종 건재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신의주갈가공공장에서는 지방에 흔한 갈을 원료로 하는 섬유판생산을 활성화하고있으며 녕변군에서는 흔한 돌을 가지고 질좋은 돌가공품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앞으로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질좋은 건재의 개발창조는 나라의 건축발전을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 일 화 ◇

위민헌신의 나날에

바람새는 소리

주체101(2012)년 5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대지구에 일떠선 창전거리에서 제일 높은 45층살림집의 베란다에 나서시였다.

경치좋은 명당자리의 궁궐같은 새 집에서 행복을 누려갈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오래도록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잠시 귀를 강구시더니 베란다의 창문을 조금 열었다가 닫으시는것이였다.

일군들모두가 영문을 몰라하자 그이께서는 살림집에서 바람소리가 난다고, 베란다창문의 어디에선가 바람이 새여드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에야 일군들모두가 귀를 강구니 분명히 창문사이로 바람이 새여들어왔다.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방에서 밖을 내다보면 경치는 참 좋은데 창문에서 바람새는 소리가 나서 들렸다고 심중하게 말씀하시였다.

그곳은 100m이상 되는 높은 곳이여서 창밖에서는 센 바람이 불고있었다. 그래서 바람이 새여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일시 큰바람은 막았으나 창문틈으로는 여전히 실바람이 새여들어와 귀를 간지럽히고있었다.

그때 일군들은 안에 창문이 또 있어서 아마 인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하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단 한점의 손색도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시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바람소리가 나는 집에서 인민들이 살게 할수는 없다. 창문들에서 바람이 새는 결함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

그리하여 창전거리의 모든 살림집들에서 창문으로 바람이 새는것을 시정하기 위한 사업들이 긴급히 벌어지게 되였다.

얼마후 수많은 가정들이 창전거리에 보금자리를 폈다.

백화점에 생긴 놀이터

주체101(2012)년 5월 30일 완공을 앞둔 평양아동백화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층부터 3층까지 다 돌아보시였을 때였다.

《평양아동백화점의 매 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점의 책임일군은 놀랐다.

상점안에 꾸려진 놀이터에 대하여 들은적도 없고 본적도 없었던것이다.

그는 물론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의아해하자 그이께서는 따뜻이 이르시였다.

아동백화점의 매 층에 놀이터를 꾸려놓고 부모들이 매대를 돌아보며 상품을 사는 동안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놀도록 하여야 한다. 매 층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린다고 하여 방을 따로 꾸릴 필요는 없고 홀이나 어느 적당한 곳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놓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을 차려놓으면 된다. …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한달후 또다시 평양아동백화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재미를 붙이면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기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평양아동백화점에 놀이터를 꾸려놓으라고 하였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상점일군의 충격은 컸다.

그도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였고 이제는 두 손자까지 거느린 할머니였다.

그러나 아들, 손자들을 거느리고 상점들을 돌아볼 때 혼잡속에서 귀한 자기 자식들을 잃을세라 손목을 꽉 잡고다녀야 한다고 타이른적은 있었어도 그들의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려 상점안에 놀이터를 꾸려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적은 꿈에도 없었던것이다.

본사기자

전승혁명사적관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는 전승혁명사적관이 있다.

이곳으로는 각계각층 근로자들과 군인들이 수없이 찾아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1년 1월 5일부터 1953년 12월 28일까지 이곳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전쟁시기 이곳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군사위원회가 자리잡고있었다.

전승혁명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곳에 계시면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후방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주신 사적자료들과 전시생산을 조직령도하신 사적자료들, 인민생활안정과 전시 과학, 교육, 문화, 보건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그리고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이끌어주신 사적자료들과 대외활동을 진행하신 사적자료들, 정전담판을 승리에로 이끄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시기 리용하시던 7동의 사적건물과 갱도, 전승혁명사적비 등이 있다.

사적건물들에는 당시 그이께서 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던 집무실과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하여주신 집, 군사위원회사업을 지도하시던 집, 식당 등이 있다.

수수한 집무실에서 그이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주요회의들을 준비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시였다. 또한 이 집무실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용하시던 집무실(갱도)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하여주신 집에는 당시 그이께서 사용하시였던 만년필을 비롯하여 여러 사적물들이 있다.

군사위원회사업을 지도하시던 집에서 그이께서는 군사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는 한편 수많은 명령과 결정들을 내리시여 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갱도에는 그이께서 계시던 집무실과 회의실, 특별병원, 식당 그리고 공화국내각 성원들이 있던 24개의 호실과 45개의 방들이 있다. 갱도입구를 비롯하여 주변에 폭탄들이 떨어지는 위험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오직 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사업하시였으며 당과 인민정권과 인민군대를 강화할 방침들과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인민적시책들을 채택하시고 수많은 문건들을 집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집무실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구상도 무르익히시였다.

그이께서는 갱도안의 회의실에서 전쟁시기 수십차례의 내각전원회의와 군사위원회를 지도하시였으며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내각결정과 군사위원회명령 등을 채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하여주신 집의 내부

하시였다.

이외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전승혁명사적비 《길이 빛나라 위대한 전승업적이여》가 세워져있고 6개의 호실로 되여있는 전승혁명사적관이 건립되여 있다.

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신 사적내용과 전쟁의 장기화에 대처하여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신 사적, 전후복구건설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그 준비사업을 령도하신 사적내용들이 전시되여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안영철

일 화

전승의 력사와 더불어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사람들모두가 휴식날의 단꿈을 꾸며 깊이 잠들었던 주체39(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였다.

38°선일대의 평화로운 마을들에 갑자기 불소나기가 쏟아졌다.

평화적인 공화국북반부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즉시에 소집하신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이 폭탄같은 선언에 일군들은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적의 불의적인 공격에 즉시적인 반공격！

세계전쟁사에 이런 례는 지금껏 없지 않았는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에게 강한 타격을 들이대여 조선사람의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적의 무력배치상태에서의 치명적인 약점과 반면에 인민군대가 반공격작전에서 승리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천리혜안의 예지로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불리했던 전쟁국면은 대번에 역전되였으며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신성한 조국강토에 덤벼들었던 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질풍같이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전쟁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기적이였다.

저격무기로 맞선 《공중우세》

주체39(1950)년 9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비대군인이 평산일대에서 야간에 기관단총으로 적들의 경폭격기를 쏴떨구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평양시위수사령관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저격무기를 가지고도 능히 적비행기를 쏴떨굴수 있다고, 앞으로 보병총, 기관단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등으로 조를 무어 사격지점을 잘 선택하여 배치하면 적비행기를 많이 쏴떨굴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이날의 말씀은 먼 후날 세계의 군사가들과 력사가들이 감탄을 금치 못해 한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가르치심이였다.

그후 비행기사냥군조들의 활동은 더욱 적극화되였으며 서해안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한 한 련합부대에서는 주체41(1952)년 한해동안에만도 106대의 적기를 쏴떨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은 적들의 《공중우세》와 《공중전략》을 짓부시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　*

영생하는 렬사들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2동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강윤제로인(90살)은 전승의 날(7. 27.)이 다가올 때면 평양시 서성구역 석박산기슭에 위치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군 한다.

올해도 로인은 증손녀와 함께 꽃송이들을 안고 렬사묘를 찾았다.

화강석문주를 지나 인민군렬사추모탑앞에 있는 《영웅의 넋》화환진정대에 꽃송이를 진정한 강윤제로인은 증손녀의 손목을 잡고 자기 전우이며 옛 분대장인 공화국영웅 황승현렬사의 묘비를 찾았다.

《분대장동지, 제가 왔습니다. 분대장동지가 보고싶어 이렇게 옵니다.》라고 옛 전우와의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분대장의 돌사진을 어루쓰다듬는 강윤제로인, 그는 황승현영웅의 묘비앞에 꽃송이를 진정하며 그의 위훈을 오래도록 추억하였다.

그리고는 증손녀의 손을 잡고 사진이 없는 한 묘비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증조할아버지, 여긴 왜 사진이 없나요?》라는 증손녀의 물음에 강윤제로인의 눈가에는 추연한 빛이 어리며 축축히 젖어들었다.

사진이 없는 묘비의 주인공, 그는 공화국영웅 최정웅렬사였다. 묘비에는 단지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사한 날만이 기록되여있다.

강윤제로인자신도 포연탄우를 헤친 렬사들중에 이 영웅이 있다는것을 전혀 몰랐다. 전승세대라고 일컫는 로병들이 모여 추억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누구도 최정웅영웅의 이름을 올린적이 없었다.

19살에 전사한 최정웅렬사에게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였어도 그와 함께 싸운 전우들이 다 희생되고 가족마저 폭격에 잘못되여 그를 기억할만 한 사람이 없었다.

전화의 영웅은 세월의 이끼속에, 사람들의 기억속에 희미해졌다.

허나 조국은 그를 잊지 않았다. 비록 사진 한장 남기지 못했어도 조국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영웅의 삶을 잊을수 없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에서는 묻혀버렸던 렬사들의 투쟁자료를 력사의 갈피를 헤치며 하나하나 찾아내였다.

이 나날 해방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된 최정웅영웅이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기고 전쟁이 개시되자 옹진방면전투에서 많은 지뢰를 해제하고 적화점 9개를 까부셔 부대의 돌격로를 연 사실이 공개되였다. 이렇게 되여 사람들은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영웅을 알게 되였으며 스스로 이 영웅의 유가족이 되였다.

최정웅영웅뿐이 아니다. 66년만에 자기 본명을 되찾은 김창걸(장창길)렬사를 비롯하여 렬사묘에 안치된 많은 인민군렬사들의 위훈을 하나하나 찾아주고 묘주가 되여준 조국의 품에서 렬사들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고있는것이다.

강윤제로인은 증손녀에게 최정웅영웅의 사진이 없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애야, 앞으로 할아버지가 같이 오지 못한다해도 너는 이 최정웅영웅을 자주 찾아와 인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전화의 영웅들이 있어 너도 있음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증손녀는 꽃다발들이 놓여져있는 최정웅영웅의 묘앞에 자기의 꽃송이도 진정하였다.

강윤제로인과 증손녀가 렬사묘를 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렬사묘로 오르고 있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박창혁

전승절을 맞으며 증손녀와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은 강윤제로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의 믿음을 안고

인민적시책이 더 잘 구현되도록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콩우유가루직장 직장장 리영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다.

그는 지난 기간 콩우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해왔다.

그 과정에 리영희직장장은 공장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종전의 생산공정에서 콩우유의 맛을 떨구게 되는 원인을 찾게 되였다.

탐구의 계속되는 나날속에 그는 콩을 불구는 물의 pH를 10으로 할 때 우유의 맛이 더 좋아진다는것을 밝혀냈으며 생산공정을 그에 맞게 꾸리였다.

이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콩우유는 학생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리영희직장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스피룰리나콩우유가루를 비롯한 새 제품들도 개발하였다.

나라에서 제일로 여기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콩우유의 맛이 0.001％라도 떨어지면 안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이 인민생활에 더 잘 구현되도록 항상 사색하고 노력하고 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직장장 리영희

《나》라는 개념은

만경대혁명사적지 종합상점 경리 김정희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인 만경대혁명사적지종합상점 경리 김정희를 두고 구역안의 주민들은 《우리 정희》, 《우리 대의원》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경리사업을 하면서 종합상점의 면모를 일신시켜놓은것은 물론 자체의 후방기지, 원료기지를 구축하여 봉사업종을 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자기가 맡은 구역안의 장훈1동에 나가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로부터 제기받은 문제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풀어주고있다.

그에게는 보풀이 인 《충복수첩》이라는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민의 목소리와 함께 그에 따르는 수행정형들이 기록되여있다. 수첩에 올라있는 주민들의 나이와 직업은 달라도 그들모두는 김정희경리의 관심속에 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는 지난해 폭우로 살림집들이 피해를 받았다는것을 알고는 종업원들과 함께 현지에 달려나가 건설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대책을 세워주었다.

《우리 경리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그의 가슴속에는 오직 자기를 대의원으로 선거해준 주민들과 종업원들의 믿음에 보답할 마음만이 꽉 차있다.》라고 종합상점 판매원 최복녀는 말하였다.

소아과장의 하루일과

모란봉구역인민병원 소아과과장 리남희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소아과분야의 권위자이다.

그는 어떤 중환자어린이와 맞다들려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신속정확한 대책을 세워 어린이의 얼굴에 밝은 웃음을 안겨주고있다. 이렇게 그의 손끝에서 소생한 어린이만 해도 수백명이다.

구역안의 어린이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는 소아과림상실천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의료기구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 4건의 발명증서와 수십개의 창의고안증서를 받았다.

치료가 끝난 저녁이면 리남희과장은 구역안의 세쌍둥이들과 선천성장애어린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검진하고 그들의 신체상특성에 맞게 만든 영양제들도 보장해주고있다.

물론 국가적으로 세쌍둥이들에 대한 시책이 적용되고 또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호담당진료소의사들이 어련히 돌봐주고있지만 이것은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그가 세운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구역안의 어린이들은 리남희과장을 엄마처럼 따르고있으며 부모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끼고있다.

모란봉구역인민병원 과장 리남희

종양에 도전한 의학자

박사 최일송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의 치료에서 방사성핵종을 리용한 근접쪼임치료는 현재 세계의학계의 초점으로 되고있다.》라고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오영석은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핵종에 의한 근접쪼임치료는 종양조직안에 침형태의 방사성핵종시드를 삽입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적절한 에네르기의 방사선으로 암세포들을 사멸시킨다. 반면에 인체에는 방사선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아 피해가 극히 적다.

최근에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방사선근접쪼임치료연구실 실장 박사 최일송이 새로운 방사성핵종에 의한 근접쪼임치료방법을 연구확립하여 세계의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가 내놓은 방사성핵종 피브로인시드에 의한 근접쪼임치료방법은 암치료에 적합한 새로운 핵종을 선정하여 치료에 리용한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금속시드대신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피브로인으로 시드를 제조하여 암치료의 적용범위를 보다 넓힌것이다.

최일송박사는 《방사성핵종 피브로인시드에 의한 새로운 암치료방법은 림상검토과정에 그 우월성이 확증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통신사들에서는 이 치료방법에 대한 동영상자료를 요구하면서 최일송박사의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의학자들도 최일송박사의 치료방법과 경험을 악성종양치료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있다.

현재 입안과 턱 및 얼굴부위의 악성종양치료에 도입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고있는 이 치료방법은 불치의 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 생의 희망을 안겨주고있으며 여러 부위의 종양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에로 심화되고있다.

최일송박사가 내놓은 치료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최정순녀성은 병원문을 나서면서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생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였다. 하지만 의료일군들의 높은 의술과 정성에 의해 나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김지성

민족옷의 아름다움을 살려

록음이 우거진 계절에 조국의 거리를 더욱 이채롭게 단장하는것은 민족의상차림을 한 녀성들의 몸단장이다.

우아한 색과 세련된 무늬장식,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미가 하나로 잘 조화된 조선치마저고리의 고상함과 독특함이 녀성들의 자태를 아름답게 해준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나가는 조국인민들은 곳곳에 있는 조선옷점들에서 자기의 기호와 계절에 맞게 민족옷들을 제작봉사받고있다.

평양시의 중심에 위치한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의 민족옷들이 특별히 녀성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민족의상들은 하나같이 민족적색채가 짙으면서도 현대미를 잘 결합시킨것으로 하여 옷의 전반적양상이 세련되고 고상하며 우아한 느낌을 주어 손님들을 만족시켜주고있다.

제작소에서는 민족옷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모방과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것을 옷제작의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도안가 김진주는 《녀성이라면 하나의 옷을 입어도 다 자기만의 독특한 몸단장을 바란다. 아무리 잘 어울리는 차림이라고 할지라도 옷의 꾸밈새가 다른 옷과 류사하거나 반복적이면 사람들은 구태여 그런 형태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아무리 인기를 끄는 옷도안이라고 해도 일단 제품으로 실현되면 그것은 이미 새것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이곳 창작가들은 항상 부단히 사색하여 새로운 도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들은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인 단붓질로 구름, 학, 꽃무늬 등 전통무늬들을 천에 직접 형상하고있는데 이렇게 제작된 옷은 무늬와 색갈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우아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또한 설계와 재단, 가공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기울여가는 제작자들의 섬세한 솜씨는 손님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뿐아니라 옷의 품위를 돋구어주고있다.

그들은 비단, 모시, 대마 등 천재료의 특성

에 따라 신축가공을 앞세워 륜곽선들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구성을 잘 살려나가고 있다.

치마저고리뿐아니라 남자들의 민족옷인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제작에서도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과 남성들의 시원스러운 성격과 기호에 맞게 부분요소들을 손색없이 형상해내고있다. 이렇게 제작되는 일상옷과 명절옷, 결혼식옷 등 민족옷들은 하나하나가 색과 무늬, 꾸밈새가 다양하며 다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민족의상제작을 단순히 옷제작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살리고 민족의 얼을 지키는 중요한 일로 간주하고있다.》라고 소장 김혜성은 말하였다.

제작소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오늘 민족의상 제작에서 손님들의 남다른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108(2019)년 촬영

민족무용의 발전과 함께

얼마전 함경남도 북청군을 지나던 우리는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나게 되였다.

그들은 조국의 여러곳을 다니며 지방의 탈군들과 로인들에게서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조선춤의 가락들을 발굴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남수향연구사는 《귀중한 인류문화유산으로 전해오는 춤에는 해당 민족의 력사와 전통이 슴배여있다. 민족의 슬기와 정기가 비끼고 인간의 감정과 생활이 담겨져있는 수많은 춤가락들을 발굴보존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들에게 지워져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민족무용유산발굴보존사업에 바쳐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화면에 담고싶어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를 찾았다.

주체35(1946)년에 창립된 연구소는 75년간 민속춤가락발굴과 보존사업, 무용부문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조선민족무용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왔다.

1950, 1960년대에 창작된 무용작품들중에서

연구소의 첫 소장이였던 인민배우 최승희는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민족적정서가 짙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정립하여 주체46(1957)년 민족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내놓았다.

민족무용동작의 집합체인 도서 《조선민족무용기본》은 조선장단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무용들을 창작할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무용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연구소에서는 주체61(1972)년부터 무용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시 세계적으로는 라반무용동작표기법을 비롯한 여러 무용표기법들이 있었지만 무용률동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야 동작을 익힐수 있는것으로 하여 창작실천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있었다.

무용연구소의 표기연구사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사람의 률동적움직임을 기본으로 하여 무용의 모든 형상적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할수 있는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완성하여 주체76(1987)년에 발표하였다.

자모식무용표기법은 주체81(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무용리사회 제10차총회에서 그 과학성과 실용성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 무용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유산이름 조선민족무용기본

유산보호 및 소유기관(개인포함)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72호로 등록되였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주체106(2017)년 10월 23일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민족무용기본》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완성하던 나날에 주체69(1980)년 촬영

무용 《3인무》

녀성군무 《돈돌라리》

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기초하여 연구소에서는 무용보편집프로그람 《백학》을 개발하였으며 무용총보들의 작성, 편집, 인쇄를 정보화할수 있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조선무용사》, 《무용기초리론》, 《우리 나라 민속무용의 특성》, 《조선무용기초동작수행원리》 등의 도서들을 집필하여 무용창작과 형상, 무용교육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각 지방들에서 전해지는 춤가락들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사업과 함께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무용심리학, 무용미학, 무용교육학을 비롯한 경계과학들을 개척하기 위한 집필사업들을 진행하고있다.

남수향연구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춤을 민족의 재보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연구활동과 집필사업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라고 긍지감에 넘쳐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지방들에서 전해지는 춤가락들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사들

미래가 웃는 땅

재미동포 박윤자

(전호에서 계속)

《엄마, 나 병원에서 살래》

무릇 병원이라면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다. 주사를 놓고 쓴약을 먹이며 상한 이발을 뽑고…

그런데 그렇듯 병원이라면 질색하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살겠다고 한다니 이보다 더 희한한 일이 또 어디 있으랴.

공화국녀성들이 친정집으로 일러오는 평양산원 맞은켠에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에서 있은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아이들을 포근히 감싸안는듯한 친근함과 살뜰함이 한껏 비껴있는 병원의 겉모양이 참으로 정답게 안겨왔다.

병원안에는 동심에 맞는 많은 만화들이 각종 모형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기묘묘하게 붙어있는데다가 현대적인 치료설비들과 입원실들이 그쯘하게 갖춰져있어 그야말로 옛말속의 동화세계에로 들어서는 느낌이였다.

여기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돈없이 치료받는다는 소리는 돈주머니에 먼저 청진기를 대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별나라이야기만큼이나 신비하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러고보면 옥류아동병원은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 치료궁전이였다.

병원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여기도 역시 병원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나는 수술실로 뛰여가는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리여 그곳으로 다가갔다. 거기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돈이 없어 소동이 벌어졌는가?

내가 이런 생각으로 다가서 보니 생명이 위급한 한 어린이를 위해 저마다 자기 피를 뽑아야 한다면서 목도가 미여지게 《란장판》이 벌어졌다.

《전 이 어린이의 담당간호원입니다. 제 피를 뽑아야 합니다.》

담당간호원의 절절한 목소리에 이어 담당의사의 말소리가 울리였다.

《안되오. 환자의 생명은 뭐니뭐니해도 담당의사가 책임지오. 그러니 응당 내 피를 뽑아야 하오.》

《됐소, 됐소. 내 피는 O형이니 내 피를 뽑으시오.》 하며 한사람이 나타나 팔을 걷어올렸다.

《안됩니다. 기술부원장선생님은 몸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어느사이 간호원처녀는 제 피를 뽑았다.

반백의 기술부원장은 《정말 <직급>도 모르는군, <란장판>이요.》라고 말하면서 그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였다.

분초를 다투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니 사실이라 믿기에는 너무 어렵고 아니라고 부정하자니 엄연한 현실이여서 놀라움과 감탄으로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나에게는 자신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여기 보건일군들이 하늘의 천사들로 보였다. 그런데 이때 퇴원수속칸앞에서 칭얼대는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집에 안 갈래. 병원에서 살래.》

(이건 또 뭐야? 병원에서 살겠다니…)

네살이나 되였을가, 총각애가 엄마의 손목을 부여잡고 병원에서 살자고 통사정을 하는것이였다.

내가 무슨 일인가고 물으니 녀인은 《아들이 오늘 병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는데 글쎄 이곳에 정이 들었는지 안 가겠다고 야단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총각애는 머루알같은 눈을 올롱히 뜨고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라고 신이 나서 말했다.

(원, 세상에 집보다 병원이 더 좋을수가 있을가?)

병원이라면 길길이 뛰며 뒤걸음질치는 철부지들의 대답치고는 너무도 천연스럽다.

친자식마냥 품에 안고 체온도 재주고 자장자장 꿈나라로 보내주던 고운 간호원아지미가 제 엄마같아서일가, 어린이놀이장에 있는 꼬마롱구대며 미끄럼대, 놀이감차가 어서 오라 반기고 맛있는 영양음식을 만들어 한술두술 떠넣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일하는 병원이여서 정든 제 집과 삭갈린것인가.

돌아보니 옥류아동병원에는 치료받으면서 배우는 특별한 교육체계까지 마련되여있었다.

부자정형외과의사

평양의학대학병원 림상연구소 연구사 김희만

평양의학대학병원 림상연구소 정형외과연구실 연구사 김희만의 맏아들 김성룡은 김만유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얼마전 성룡이 수술한 70대의 한 로인은 제발로 대지를 활보하였다.

로인이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 한쪽대퇴는 심하게 부스러져있었다. 인공대퇴관절을 이식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로인의 나이가 많아 수술이 어려울수 있었고 더우기는 약물알레르기성체질이였다.

만일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고 인공대퇴관절을 이식하지 않는다면 로인은 일생 삼륜차신세를 면할수 없었다.

성룡은 아버지 김희만의 조언을 받아가며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성룡은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의사가 된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정형외과학분야의 권위있는 학자인 아버지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았다. 성룡은 아버지가 국내재료로 제작하여 국가발명권을 받은 인공무릎관절로 수많은 환자들을 일으켜세웠다.

김희만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그 누구보다 먼저 환자들에게 도입하는 성룡을 도와 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몇해후 성룡은 정형외과의사로서의 림상검토과정에 쌓은 경험을 체계화하여 《대퇴상단부골절의 진단과 치료》라는 참고서도 집필하였다.

10여년전 성룡은 평양제1중학교 졸업을 몇달 앞두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정형외과를 전공하겠다며 어릴적부터 품어온 물리학자가 될 결심을 바꾸었었다.

사실 희만도 축구선수로부터 의사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김희만은 일본 도꾜의 자그마한 철공소의 한 로동자의 막내아들로 태여났다.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으며 마음껏 공부하면서 전망성있는 나어린 축구선수로 활약하던 그는 늘 선생님과 동무들의 신망속에 있었다.

그의 가슴속에 소중한 꿈이 있다면 축구명수가 되는것이였다.

하여 그는 조국에서 그 꿈을 꽃피울 결심을 품고 16살 되던 해인 주체60(1971)년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그가 2.8체육단(당시)에서 축구선수로 있던 어느날 팀의 한 선수가 경기도중에 심하게 부상당하였다.

이름없는 한 축구선수를 위해 자기의 뼈를 서슴없이 바치고 혈육의 사랑과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는 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을 보며 희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길지 않은 나날에 그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끼였다. 하지만 인공뼈가 없어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정형외과의사가 될 결심으로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하였다.

희만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대학병원 림상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실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지난 30년간 10여개의 국가발명권을 소유하였고 인공대퇴관절제작 및 수술방법을 확립하여 국가과학기술부문의 최고상인 2.16과학기술상까지 받았다. 그리고 여러권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수많은 제자들과 학위학직소유자들도 키워냈다.

이전에 그와 함께 축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따금 그에게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가고 묻군 한다.

그럴 때마다 희만은 《나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이 길을 돌이켜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활력을 준데 대하여 긍지와 자부를 안고있다. 나의 아들도 나라의 정형외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아버지가 걸은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는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였다.

오늘 그들부자는 정형외과학분야의 실력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김만유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맏아들 김성룡(오른쪽)

가족과 함께

아이들의 학습실이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해 배치된 선생님까지 있다. 입원후 건강회복기간에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맞추어 공부를 하게 된다. 국가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엿볼수 있다.

나는 류다른 《출석부》에 올라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자한자 조용히 불러보았다. 박행복, 최광명, 리지혜, 오광일…

병원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융합시킨것은 참으로 탄복할 일이였다.

묻거니 이 지구상에 억만재부를 자랑하고 《만민복지》를 떠드는 나라들이 많지만 평범한 인민의 자식들이 담당의사와 교원을 곁에 두고 병치료를 하는 나라가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미래를 귀중히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런 세계를 도저히 이룰수가 없다. 북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수도 실현시킬수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정녕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키워주는 공화국의 따뜻한 사랑, 무상치료혜택속에 사회주의향기가 넘쳐나는 아이들의 참다운 궁전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나노금키토잔수는 천연재료로 나노화한 금, 키토잔, 여러가지 기능성천연생리활성물질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건강식품이다.

나노금과 키토잔의 신기한 효능으로 인체의 모든 기력을 왕성하게 하여 젊음을 되찾게 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식품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건강식품으로 되고있다.

보통강고려제약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나노금키토잔수는 주체105(2016)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를 받았다.

사 화

곽산의 장사솜씨

옛날에 림곽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친구에게서 우리의 장사배가 이웃나라에 가면 항상 본전도 못 찾고 손해를 보며 멸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곽산은 이를 사려물고 무엇인가 굳은 결심을 다지는것이였다.

다음날부터 림곽산은 인삼장사준비를 다그쳤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인삼을 가득 실은 배와 도라지를 가득 실은 배를 끌고 항구를 떠났다. 그가 배를 이웃나라의 항구에 대자 그곳의 코대높은 장사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곽산은 가만히 눈치를 살피다가 시세보다 배나 비싸게 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곳의 장사군들은 저희들끼리 곽산이 인삼을 다시 가지고갈수는 없을터이니 1원이상이면 사지 말자고 약속하고는 곽산에게 달라붙었다.

그러자 곽산은 큰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인삼을 그렇게 판다면 아마 돌아가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것이요. 그렇다고 1원으로 팔수는 없는 노릇이니 래일 인삼을 모두 바다에 처넣고 돌아가겠소.》

다음날 날이 훤히 밝자 곽산은 배를 저쯤 끌고나가 도라지를 물속에 처넣기 시작하였다. 설마하고 눈치만 보고있던 그곳의 장사군들은 놀라서 곽산에게서 값을 다시 흥정해보자고 낮추 불었다. 그래도 곽산은 어찌 대장부가 한입으로 두말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배에 실었던 《인삼》을 몽땅 바다속에 처넣게 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조선의 인삼을 사지 못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 이웃나라의 장사군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인삼을 팔라고 애걸하였다.

그러자 곽산은 못이기는척 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 요구가 정 그렇다면 남은 한배는 팔터이니 한근에 4원씩 내시오.》

이웃나라의 장사군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다.

《어제는 2원이라고 하더니 어째서 오늘은 4원을 부르시오?》

《어제야 인삼이 배 두척이였으니까 2원이였지. 오늘은 한척밖에 남지 않았으니 4원을 받아야 할것이 아니요. 당신들은 더 내는셈이지만 나야 제 값을 받는셈이지요.》

이렇게 말한 곽산은 정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나머지인삼도 다 물속에 처넣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웃나라의 장사군들은 형세가 글렀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투면서 한근에 4원씩 곽산의 인삼을 사들이였다.

이웃나라 장사군들의 코대를 보기 좋게 꺾어버린 곽산은 유유히 조국으로 돌아왔다.

* * *

7월의 절기와 민속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 더위가 있다는 대서가 있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이며 대서는 7월 22일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서를 전후로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맞게 김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대서를 전후하여서는 다음해에 쓸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이 시기에 풀을 베여 쌓아두면 풀더미가 푹 썩어 다음해농사에 좋은 유기질비료로 되였다.

선조들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먹었다.

대표적으로 삼복철음식을 들수 있다. 여기에는 단고기국, 팥죽, 비빔밥 등이 있다.

특히 단고기국은 삼복철에 우리 인민들이 즐겨먹는 특색있는 민족음식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복철의 단고기국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고 하면서 삼복철의 복날들에 조밥을 단고기국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푹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기였다.

본사기자

함경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2)

- 정북사 -

정북사는 함경북도 경성군 승암로동자구 승암산남쪽기슭에 있는 사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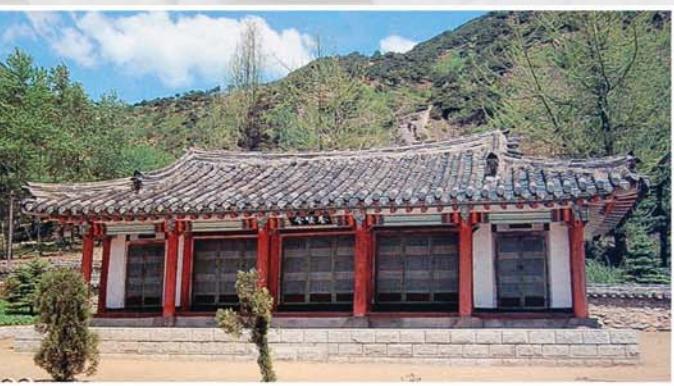
사당은 우리 나라의 북방개척에서 공로를 세운 고려시기의 윤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김종서를 비롯한 4명을 기념하여 세운 건물이다.

1437년 절도사 김종서의 발기로 처음 세우고 《로당》이라 불렀다. 그후 1721년에 고쳐세우고 문숙공묘라고 개칭하였으며 1845년 그 이름을 정북사라 고쳐불렀다.

외적의 침입으로 1868년에 파괴되였던것을 1901년에 옛터에 다시 세웠다.

정북사는 네모나게 두른 담장안에 배치되여있으며 정면에는 정북루가 서있어 입구(문)의 역할을 하고있다.

담장안 복판에는 강당인 양현당이 있고 그 앞마당좌우에는 동무와 서무가 배치되였다.

양현당뒤에는 본전이 있고 서쪽으로 치우쳐 윤문숙공비각이 서있다.

정북루는 2익공두공을 얹은 2층합각루정이며 모루단청을 입혔다.

양현당은 기단우에 세운 합각집이며 집안좌우의 칸은 온돌로 되였다.

본전은 합각집이며 모루단청을 입혔다. 내부에는 문관과 무관모습의 윤문숙공초상이 있으며 그앞에 위패가 놓여있다.

정북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술과 우리나라 북방개척의 력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주는 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　　*　　*

양현당

필란의 절개

신라왕궁에 만덕이라는 한 악공이 있었다.

그에게는 시집갈 나이에 이른 딸이 있었는데 마음씨는 물론 인물 또한 절색이였다.

어느날 그는 자기의 스승인 우륵(6세기 초중엽에 활동한 음악가)으로부터 자기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는 청혼을 받았다.

얼마전에 자기 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숙성한 딸을 보고 인물맵시와 례절에 탄복한 우륵이 만덕에게 사돈을 맺자고 했던것이다.

우륵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인물도 잘난데다 총명하여 궁궐의 관리들이 은근히 마음에 두고있는 신랑감이였다.

만덕은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딸을 불러 우륵의 집에서 청혼해온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딸 필란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찌 도리를 어기시고 저를 다른데로 시집보내려 하시나이까?》

만덕은 자기와 동갑친구인 법지의 아들 법랑에 대해 생각하였다. 법지는 만덕과 함께 우륵이 가야국에서 온 후 그의 제자로 뽑히웠다. 그들은 음악을 배우는 기간에 장가도 같이 들고 집도 나란히 지어 살아온데다 자식도 같은 날에 보게 되였다. 그들은 애들이 자랄 때 만덕의 딸은 법지의 며느리라, 법지의 아들은 만덕의 사위라 부르면서 지내왔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법지의 내외가 병을 앓아 세상을 떠났고 걸음마를 겨우 떼던 아들은 이웃마을에 혼자 사는 녀인이 데려다 키우게 되였다. 그런데 법지의 아들은 여러문살 났을 때에 시름시름 앓다가 눈이 멀었고 뒤이어 말도 못하게 되였다.

십여년세월이 흘러 법지의 아들을 자기의 사위라고 부르던것이 만덕의 기억속에서 사라져버린지 오래였다. 더구나 앞을 못 보는데다 말까지 못하는 소경에 벙어리를 자기 사위로 삼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만덕이였다. 그런것을 오늘 새삼스레 딸이 말하니 만덕으로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필란은 《우륵의 아드님은 인물도 잘나고 재간도 많다 하였으니 그가 다른 처녀를 구할수 없겠나이까. 그러나 법랑은 앞 못 보고 말도 못하는 병신이오니 저는 그가 홀로 세상을 마치게 할수 없나이다.》라고 하였다.

만덕은 성이 났지만 딸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이것은 스승과 결말을 맺은 혼사이니 달리할수 없다. 래일 당장 선보이러 신랑을 데려오겠으니 옷손질을 하고 몸단장도 잘하여라.》

이튿날 아침 만덕은 궁궐에 나가기에 앞서 딸이 옷손질과 몸치장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보려고 그의 방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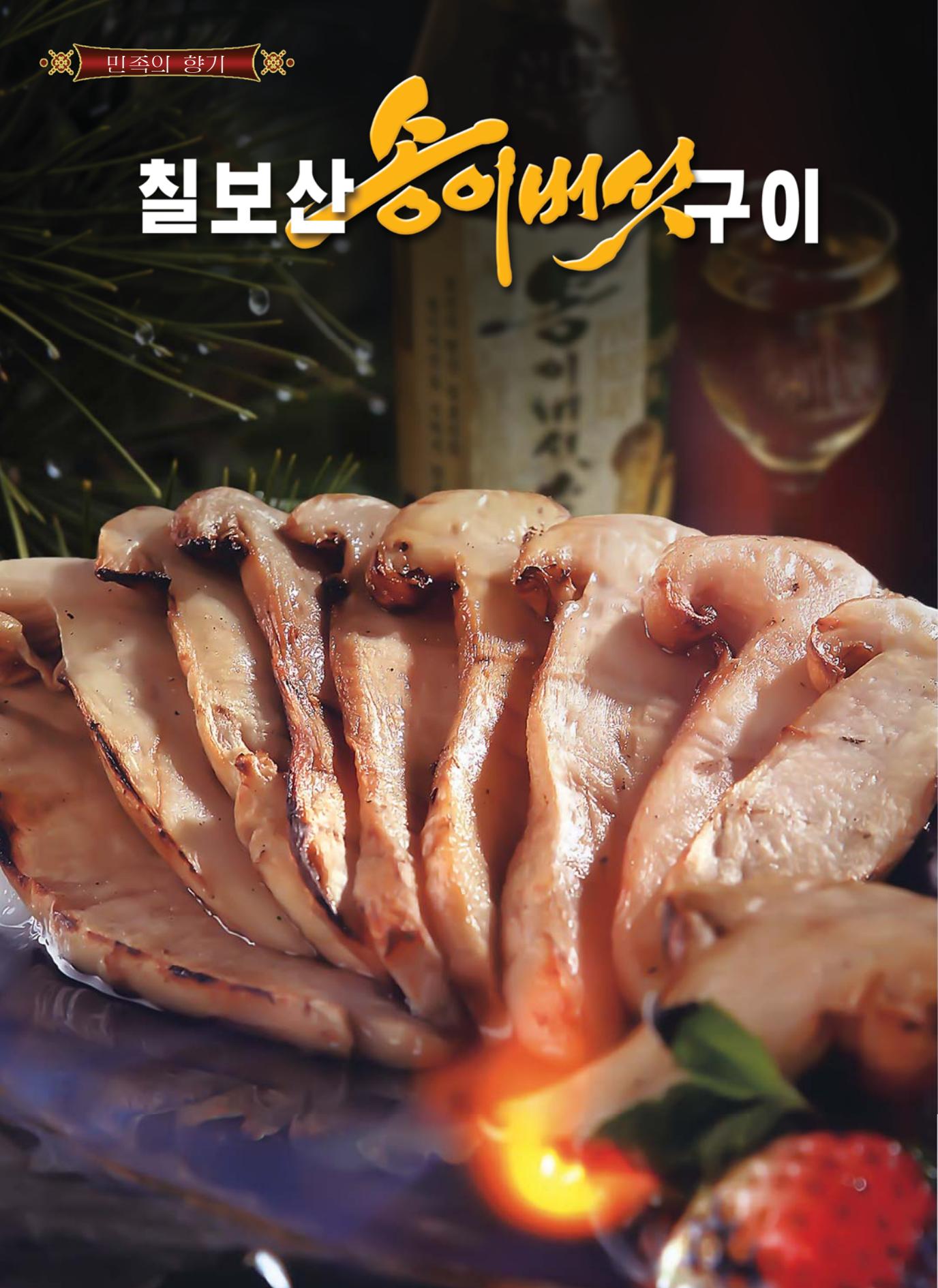
순간 만덕은 놀랐다.

필란이가 간밤에 머리를 깎고 얼굴을 바늘로 찔러 먹물을 먹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기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은 스승이 정한 혼사라 물리기 어려워하셨는데 인젠 우리가 거절치 않아도 저의 이 모양을 보면 그들이 저절로 물러날것이 아니오이까?》

이런 일을 당하고 대궐에 나간 만덕의 얼굴은 병든것처럼 하얗게 질려있었다.

만덕에게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우륵은 심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우리가 친우의 도리를 저버릴번 한것도 큰일이였지만 음악가로서 가야금을 더 훌륭하게 탈수도 없게 될번 하였댔구려. 친구의 도리를 어긴 우리들이 노래를 지은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남의 행복을 앗고서 가야금을 탄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수 있었겠소?》

우륵은 옛 제자인 법지의 아들과 만덕의 딸의 혼례를 곧 치르어주자고 하였다.

이리하여 필란은 만사람의 축복속에 법지의 아들과 혼례를 치렀다.

*　　*　　*

칠보산송이버섯구이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에는 어디 가나 특산물이 많습니다.

그가운데는 칠보산송이버섯도 있습니다.

산과 바다의 뛰여난 풍치로 하여 조선의 명산으로 이름높은 칠보산의 송이버섯은 특이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호에 그 유명한 칠보산송이버섯구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송이버섯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자료에는 수백만년의 인류력사에서 사람들이 버섯을 식료품으로 리용하기 시작한것이 약 3만년전부터였다고 씌여져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산과 들에서는 100여종의 먹는 버섯이 자라고있는데 그가운데서도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참나무버섯 등 40여종의 버섯은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송이버섯은 화강암, 석영반암, 석영조면암, 사암, 규암 등을 기본으로 하는 소나무숲속의 양지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며 물이 잘 빠지는 성글성글한 땅에 무리로 돋습니다. 송이버섯이라는 이름에서 송자는 소나무라는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송이버섯에는 사람의 인체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타민들과 많은 광물질원소,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항암물질도 포함되여있습니다.

송이버섯으로는 구이, 볶음, 통졸임 등을 만들어먹으며 말리워 가루를 내서 양념감으로도 쓰고있습니다. 송이버섯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에 좋은 영향을 주며 아픔을 멎게 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와 가래가 성할 때 쓰면 효과가 있을뿐아니라 항암제, 리뇨제로도 쓰이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송이버섯료리를 다양하게 봉사하고있는 류경관을 찾아 주방장 옥치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자: 이 식당에서 리용하는 송이버섯은 언제 어디에서 딴것입니까?

주방장: 우리는 해마다 9월이면 칠보산에서 송이버섯을 따서 비행기로 직송하여 랭동보관합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송이버섯의 선도를 최대로 보장하여 다양한 료리를 만들고있습니다.

기자: 그럼 손님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송이버섯료리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주방장: 제일먼저 꼽히는것이 바로 송이버섯구이입니다. 송이버섯구이는 직접 불에 구워 따끈따끈할 때 참기름장에 찍어먹는 료리로서 현지에서 맛보는듯 한 특유한 향취를 느낄수 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좋아하고있습니다.

기자: 그럼 독자들을 위하여 송이버섯구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수 있겠습니까?

주방장: 물론입니다. 신선한 송이버섯을 깨끗이 손질하여 두께가 7㎜정도 되게 세로 길이로 자릅니다. 거기에 간장, 기름, 파와 마늘, 사탕, 깨가루, 식초, 맛내기 등을 두고 30분정도 재웠다가 불우에 적쇠를 놓고 타지 않도록 골고루 굽습니다.

혹은 얇게 저민 송이버섯을 적쇠우에 올려놓고 불에 구운 다음 참기름과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만든 양념에 찍어먹을수도 있습니다.

기자: 이야기만 들어도 칠보산송이버섯향기가 풍겨오는것만 같습니다.

동포여러분, 류경관에서 칠보산송이버섯구이를 한번 맛본 손님들은 그 맛과 향기를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고있습니다.

일곱가지 보물에 비겨 불리우고있는 칠보산의 이름과 더불어 이름높은 칠보산송이버섯,

아마 여러분은 칠보산송이버섯구이를 맛보는 그날 자신의 얼굴에 피여오르는 웃음과 더불어 10년은 더 젊어질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상식

기 리 차

기리차는 수레가 굴러가면서 자동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수레바퀴의 회전수에 따라 종과 북이 울리게 되여있는 기리차는 1441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였다.

둘레가 열자(한자는 0.303m)되는 기리차의 바퀴우에는 3개의 회전치차들이 차례로 련결되여있다. 첫 치차가 15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치차는 1바퀴, 가운데치차가 10바퀴 돌면 마지막치차는 1바퀴 회전하게 되였다. 종과 북을 치는 기구는 가운데치차와 마지막치차에 설치되였다. 수레우에 탄 사람은 종소리와 북소리를 듣고 해당 거리를 알수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기리차를 리용하여 각이한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종전에 알고있던 거리들도 재확정하였다.

기리차의 측정정확도는 후세에 사용된 줄자보다 더 높았다.

* * *

www.korean-books.com.kp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